

**경의선 유희부지 가좌역 ~DMC역
공원화 추진 청원 검토보고서**

2013년 12월 2일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전문위원 김은모

경의선 유희부지 가좌역 ~ 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 검토보고서

1. 청원인 : 최영섭(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참누리A 107-1902)
외 2,407명

2. 소개의원 : 오진아 의원

3. 접수 및 회부일자

○ 접 수 일 : 2013년 11월 22일

○ 회 부 일 : 2013년 11월 26일

4. 청원요지

○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된 가좌역~ DMC역 구간은 그 동안 철도부지로 자동차운전학원, 차고지 및 나대지로 방치되어 교통혼잡 유발 및 소음 진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지역으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지역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의 계획대로 마포구가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로 구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공원화를 추진해 줄을 요청함.

5. 청원소개의견 요지(소개의원 : 오진아 의원)

-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된 가좌역~DMC역 구간에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.

6. 그 간 추진사항

- 2010. 3. 25. : 경의선 가좌역~DMC역 구간 공원화 청원 심의 (심의결과 : 가좌역~DMC역 구간을 공원화 하는 것은 적절하나, 행정재산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용도폐지, 매각협의, 성산운수 지하시설물 처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심사 보류함)
- 2013. 5월 : 국토부에서 수도권 도심 7곳(오류동, 가좌, 공릉, 고잔, 목동, 잠실, 송파)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발표
- 2013. 6. 13. :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가좌지구 행복주택 주민 설명회를 개최(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) => 주민설명회 무산
- 2013. 9. 9. :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가좌지구 행복주택사업 설계추진 설명회를 개최(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) => 가좌지구 행복주택 사업추진 반대항의와 의사표시를 하였고, 경의선 부지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
- 2013. 8. 28. : 국토부에서 가좌지역을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로 지정고시
- 2013. 11. 13. : 마포구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

7. 검토의견

- 본 청원의 소재지는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인접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된 철도부지 가좌역~DMC역 부근으로 인근에 12개 단지 7,422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최근 MBC, SBS 등 방송국 등이 입주하여 명실상부 서울 서북권 부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임.
-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래동안 철도부지가 자동차운전학원, 차고지 및 나대지로 방치되어 교통 혼잡 유발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오면서도,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약속만 믿고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도 잘 참으며 살아 왔음.
- 그 동안 마포구에서는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3년 2월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공단과 협약(MOU각서)체결 직전까지 공원화사업이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, 이 지역에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던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민원으로 공원화 사업이 무산되었음.
- 더 나아가서, 2013. 8월 국토부에서 가좌지구에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이 지역 공원화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.
- 따라서,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업무 협조로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가좌역~DMC역 구간의 공원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구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조속히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된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 가좌지구 경의선 철도부지 지상부 공원화사업은 그 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철도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를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일에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며,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은 40만 구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또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가좌지구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경의선 공원화 계획과 서로 배치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전에 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며, 따라서 마포구·서울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에서는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이 중간에서 허리가 잘린 미완성의 공원이 아니라 가좌역~DMC역 까지 계속 연결하여 완성된 경의선 지상부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년월일	2013. 11. 22	접 수 번 호	1
청 원 인	최영섭 외 2,407명 (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참누리APT 107-1902)		
소 개 의 원	오진아 의원	소관위원회	복지도시 위 원 회
건 명	경의선 유희부지 가좌역 ~ 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		

〈요 지〉

- 서울특별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된 가좌역 ~ DMC역 구간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대하며,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원함.